생활금융톡톡 | 금융감독원 | 은행연합회 | 금융투자협회 | 생명보험협회 | 손해보험협회 | 여신금융협회 | 저축은행중앙회

제52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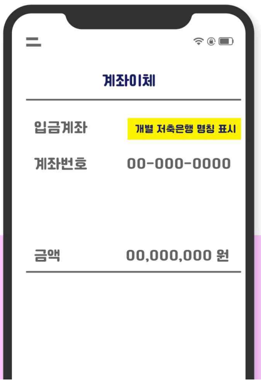
인터넷·모바일로 계좌이체시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됩니다

—
그간 금융소비자가 인터넷·모바일을 통해 저축은행으로 계좌이체시 '개별 저축은행명'이 표시되지 않고 '저축은행'으로만 표시되어 왔습니다.

—
정확한 이체 상대 기관 확인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착오송금 등을 방지하고자 계좌 이체 시 개별 저축은행 명칭이 표시되게끔 변경합니다.

어떤 점이 달라지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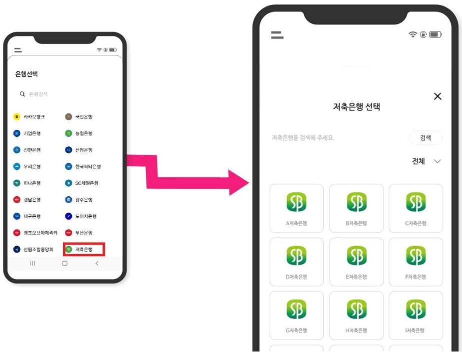
앞으로 **비대면 채널(인터넷·모바일)을 통한 이체 거래시 개별 저축은행(79개사) 명칭**이 표시됩니다.



추진배경이 어떻게 되나요?

그동안 **저축은행업권은 동일한 금융기관 공동코드(050)를 사용**하기 때문에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.

'저축은행'으로만 표시되어 정확한 이체여부에 대한 고객 불안감 및 착오송금 등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중앙회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.



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?

이체시마다 **정확한 이체 상대방 확인**을 통해 **고객 혼란을 해소합니다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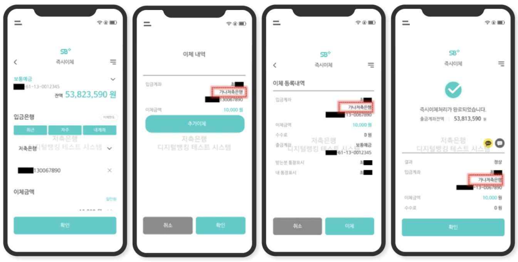
- 송금인이 이체시 수취인에게 계좌번호 등을 다시 확인하거나 이체후 수취 여부를 문의하는 등 **이체 정확성을 재차 확인**하는 **불편을 해소**

이체전 **저축은행 명칭 확인**을 통해 **착오송금을 미연에 예방**하여 **불필요한 비용**(반환청구 소송 비용 등) 발생을 **사전 차단합니다!**

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?

'22.6.21부터 **SB톡톡+** 등 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계좌 이체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미통합전산 및 개별저축은행 자체 앱 등 비대면 채널의 경우 **'22.9월말**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.

은행·증권사 등 전자금융 참가기관 대부분은 **'22년내 개발·적용할 예정**입니다.

(참고) SB톡톡플러스 화면내 개별 저축은행 명칭 표시